

분열된 노동

김화순**

‘직(職)-업(業)의 분리’ 이후 작은 생명들의 투쟁*

초록 본 연구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노동 세계에서 직(職)과 업(業)의 분리가 어떻게 고착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 주체들의 삶이 어떠한 존재론적 변용을 겪게 되었는지를 구술자료에 기반해 스피노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시장화나 일상 변화에 주로 주목해 왔다면, 본 연구는 직장 소속과 실제 생계활동의 분리 속에서 노동자들이 어떠한 생존 전략과 정서적 변용을 경험했는지를 추적한다.

국가의 보상체계가 약화되고 간부층이 지위적 지대(positional rents)를 독점하는 가운데, 북한의 생산조직은 ‘직분형 노동자’, ‘생업형 노동자’, ‘직업형 노동주체’로 분화되었다. 구술 참여자 신철, 영실, 은철의 생애사 분석 결과, 이들의 코나투스(欲)는 각각 축소, 방황, 적응이라는 상이한 양태로 발현되었다. 이는 직-업 분리가 단순한 경제적 생존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 주체의 분화와 정서의 재구성을 수반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구술생애사 접근을 통해 분열된 노동이 낳은 주체의 분화, 코나투스의 다양한 양태, 그리고 작은 생명들의 투쟁을 드러냄으로써, 북한 국가의 반생명적 정치를 존재론적 층위에서 조명하였다.

주제어 직-업 분리, 생업, 코나투스, 정서, 지위적 지대, 분열된 노동, 구술생애사, 변용, 스피노자, 직업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70127).

이 논문은 진태원 선생님의 2025년도 스피노자 『에티카』 강독과 엄정한 개념적 논의에 빛지고 있다. 북한 민중을 존재론적 층위에서 사유할 수 있도록 필자의 시각을 열어주신 진태원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 중앙대학교 교양대학 연구전담교수

1. 서론: 분열된 노동

본 연구의 관심사는 시장도 국가도 아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안녕(well-being)이다. 북한 인민들의 생존은 왜 불안한가? 평양에 마천루를 방불케 하는 고층 현대식 건물이 건축되고 식량 사정이 호전되었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다수의 인민은 생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가? 간부나 평민,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든 구성원이 자신과 가족의 생존 및 미래를 걱정하는 지극히 불안하고 우울한 사회, 이것이 현재 북한의 초상이다.

오늘날 북한의 노동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는 ‘분열된 노동’(Fragmented Labor)이다. 이는 제도적 규범으로서의 노동과 개별 주체의 실존적 생존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완전히 분리된 사회적 상태, 즉 ‘직(職)-업(業)이 분리’(Disjunction between State-Assigned Post and Subsistence Labor)된 사회이다. 이를 통한 존재론적 생존 불안이 전 인민적으로 실재한다는 점에서 이 사회는 생존불안사회(Society of Survival Anxiety)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노동 사회의 구조적 균열인 이 직-업 분리 현상을 단순한 경제적 적응이나 체제 전환의 결과로 환원하지 않고, 척박한 환경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인간 본연의 생명력, 즉 스피노자의 ‘코나투스’(conatus)가 발현되는 존재론적 투쟁의 프레임으로 독해하고자 한다. 이 개념의 이론적 정초는 제2장에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논의와 함께 상술한다.

본 연구는 ‘직(職)-업(業)의 분리’ 현상을 존재론적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직-업 분리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호명인 직과 신체의 실재적 생존인 업이 파열된 상태를 의미한다. 과거 배급제가 작동하던 시절에는 직장에 출근하여 배급을 받음으로써 생존이 가능했기에 직과 업이 일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배급제가 붕괴하면서 직과 업은 분리되었다. 국가가 부여한 직분은 정치적 생명을 증명하는 형식적 외피가 되었고, 살아 있는 육체적

생명을 부양하는 생업은 장마당을 비롯한 비공식 영역으로 밀려났다. 이 균열의 공간에서 인민 개개인의 생존에 대한 불안은 일상화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 연구에서 ‘직업’(Occupation)이라는 개념은 계층연구나 경제연구에서조차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주된 쟁점은 국가와 제도, 시장, 경제 및 정치 생활이었으며, 구체적인 직장 생활이나 직업 생활은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근 박형중 외(2023)의 연구가 직장생활을 연구 주제로 다루었으나¹ 여전히 북한 노동의 실존적 차원을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상태이다. 이는 북한에서 직업이라는 용어가 개인의 자아실현을 전제하는 근대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에서 ‘직업 선택’이란 법조문으로만 존재하는 용어이며, ‘직업 배치’라는 용어조차 생경하다. 북한 내부자들은 ‘노동력 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가는 노동을 철저히 자신의 입장에서 규정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직업을 분석의 렌즈로 삼은 이유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나 비공식 부문, 노동시장이라는 추상적 용어로는 빠져나가는 분열된 노동의 현장을 미시적으로 포착하기 위함이다.

2000년대 중반 북한 연구를 주도했던 시장화 이행 논쟁은 비공식화 가설과 정치엘리트 지배가설의 대립으로 요약된다.² 김병연·양문수(2012)와 박형중(2012) 등은 시장화의 성격을 두고 논쟁을 벌였고, 고유환과 한재헌 등은 이를 혼종성 논의³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시장화 논쟁의 양 진영은 국가와 시장이라는 구조적 변수의 역학에 천착한 나머지, 그 구조의 틈새에서 직과 업의 분리를 감내하며 살아가는 인민 개개인의 신체적 생존과 존재론

1 박형중·정은미·김화순(2023), 『북한주민의 직장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 북한연구에서 비공식화가설을 주장한 대표적 연구자로 경제학자인 김병연의 저술을 꼽을 수 있다. 김병연·양문수(2012),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박형중(2012),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6(5).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 체제이행 논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시장화논쟁의 종결을 위해 통일연구원, KDI 이석 등 정책연구자 그룹도 논쟁에 뛰어들었다.

3 한재헌·고유환(2020), 「북한사회인식의 습속과 혼종성이라는 문제설정」, 『북한학연구』 16(1).

적 불안은 연구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었다.

시장화 이행 논쟁 이후 20여 년이 흐른 2025년 현재, 우리는 체제의 이행도 계획의 복원도 아닌 교착 상태를 목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정보와 물자의 통로마저 차단되면서, 이 교착은 인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이제 우리는 시장화라는 경제적 기표 뒤에 가려진 민중의 민낯, 그들의 존재론적 불안과 정서(affectus)를 직면하고 주체들의 숨겨진 역동을 읽어내고자 한다. 비공식경제활동참여율 91.7%라는 수치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인민들의 존재론적 상황,⁴ 즉 국가 코나투스의 강압적 형식과 민중 코나투스의 충돌이 빚어낸 균열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균열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단위(單位, Work Unit), 즉 공장·기업소·농장 등의 직장 조직이다. 그간 북한 연구에서 직장단위는 경제적 생산 단위로만 협소하게 이해되었으나, 본 연구는 공장, 기업소, 사업소 등 직장단위를 생존 불안이 구조화되고 전유되는 실존적 플랫폼으로 재정초(re-grounding)함으로써, 분열된 노동의 현장을 존재론적 층위에서 포착하고자 한다.

고난의 행군 이전, 북한의 직업 생활은 국가의 엄격한 규율이 지배했다.⁵ 1980년대 초반까지 인민들은 직장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고된 노동을 수행해야 했지만 보상도 일정하게 주어졌다. 최소한의 주거가 보장되고 식량 배급이 균일하게 이루어졌으며 임금 격차도 작은 편이었다.⁶ 비록 핵심·

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0), 『북한 사회변동 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p. 105-106.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8~2019년 당시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공식 경제활동(직장 출근 등) 참여율이 71.6%로 급락하고 비공식경제활동참여가 91.7%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허용한 제도적 외피를 전용하여 비공식경제활동이 벌어졌다. 대표적인 정책적 계기는 김일성의 지시로 시작된 1984년도의 인민소비품운동으로 이는 8.3노동자의 초기 맹아적 형태를 보여준다.

6 국토통일원(1971), 『북한의 생활실태』 참조. 1965년 이후 직위별 배급량은 고급관리 당 간부는 700g, 일반노동자 700g으로 균등하다. 단, 백미와 잡곡의 혼합비율이 5:5, 3:7로 차이가 있다(11쪽). 임금은 3급기업소 지배인은 80~100원이고 노동자 최하급인 3급은 30원이다(80~81쪽). 선한승이 인용한 임금표에서 노동자 100원과 중앙당 부부장의 임금

기본·복잡 군중으로 등급화하고 기본군중 이상에게만 상향이동이 허용되는 불평등한 신분사회임에도 불구하고,⁷ 이 같은 성분 중심의 정치 신분제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한국전쟁에서 총인구의 18%가 사망한 현실에서 전쟁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신분 위계 구축⁸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적대계급은 전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배제되었기에 그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이처럼 ‘적대계층의 배제와 전 인민적 동의’라는 역설 속에서 정치 신분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배급제가 붕괴하면서 사회의 운영원리는 와해되었다.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평양의 인민과 지배엘리트들에게는 자원을 공급하였지만 대다수 인민들을 방기한 결과 수많은 인민들은 아사하기에 이르렀다.

고난의 행군 종식이 선언된 2000년대 이후, 위기 시기의 차별적 배급과 불평등한 자원 분배는 사회의 통치 원리로 고착되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더 많은 지대적 이권(Positional rent-based interests)⁹을 차지하고 약자는 배제되는 상황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굳어졌다. 이 기형적 공간에서 직과 업의

은 500으로 임금격차는 5배이다. 선한승(1994), 『북한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 서울: 공보처; 선한승 외(2000), 『남북협력과 노동정책』, 한국노동연구원, p. 51.

7 김화순·최봉대(2022), 「1980년대 북한 정치신분제에서 세대 간 지위세습과 성취기제」, 『현대북한연구』 25(3).

8 김병로(2000),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9(1), p. 230.

190만명의 손실인구 중 이동인구 15만명을 제외하면 175만명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당시 북한인구의 18%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는 남한인구의 5% 사망자규모에 비해 3.5배에 달하는 비대칭을 보인다.

9 지위적 지대(positional rents)란 국가가 공식적으로 부여한 직(職)의 권한이나 자원 통제력을 활용하여 간부 등 특정 계급이 사적으로 취득하고 독점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Tanzi, Vito (1998), “Corruption Around the World,” *IMF Staff Papers* 45(4), pp. 559-594. 따라서 지위지대의 개념을 북한에 적용하면 ‘지위지대형 노동주체’란 근대적 의미의 생산 활동이 아니라, 제도의 균열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지대를 수취함으로써 생존하는 집단, 즉 간부 혹은 간부를 보조하는 보조성원들을 주로 지칭한다.

분리가 심화되었고, 이 균열로부터 수많은 불안정 노동주체들이 출현하였다. 누가 공장과 기업소에 남아 ‘먹을 알’¹⁰을 차지하고, 누가 생업형 노동자가 되며, 누가 노동의 의무만 짊어지는 직분형 노동자가 되었는가? 본 연구는 직업과 코나투스라는 두 개의 렌즈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인민들의 노동 세계와 노동의 분화, 존재 양식이 겪어온 변용의 결과를 추적하고자 한다.

북한 주민 일상생활 연구들은 직장현장에서 관찰되는 노동자의 행위를 주로 ‘저항과 순응’이라는 범주로 해석해왔다.¹¹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관찰자의 의미 부여에 의존하는 외적 묘사의 층위에 머문다. 1980년대 이후 배급량이 700그램에서 400그램으로 감소한 조건에서 노동자의 느린 동작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체제에 대한 의식적 거부인가? 혹은 줄어드는 열량에 대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인가를 ‘느릿느릿’이라는 외적 행위만으로는 판별할 수 없다. 동일한 ‘느릿느릿’이 어떤 시기에는 배급 삭감에 대한 능동적 대응일 수 있지만, 다른 시기에는 정서가 발현될 여건조차 남지 않은 코나투스의 소진일 수도 있다. ‘저항과 순응’이라는 이분법으로는 그 행위를 추동하는 신체의 역량 상태를 포착하지 못한다. 외견상 형태로는 동일해 보이는 내적 차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신체의 존재론적 상태와 정서를 추적하는 또 다른 차원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 본 연구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conatus)와 정서(affectus) 개념을¹² 채택한 이유가 존재한다.—거시적인 통계 지표나 구조적 관찰만으로는 포

10 여기서 북한 현지어인 ‘먹을 알’이란 공식적인 배급이나 월급 외에, 직장의 자원이나 직무 특성을 활용하여 노동자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비공식적 이권이나 수익을 의미한다.

11 조정아(2005), 「북한의 작업장 문화: 순응과 저항의 스펙트럼」, 『통일정책연구』 14(2), pp. 320-321.

12 본 연구는 affectus의 번역어로 ‘정서’를 채택한다. 스피노자에게 affectus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 변용의 관념이며, 신체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정동’이 신체적 차원을 강조하는 들뢰즈 이후의 용법에 가까운 반면, 이 연구는 스피노자 원전에 근거하여 ‘정서’를 번역어로 채택한다. 이는 다음 논문에 의거한다. 진태원(2016), 「정동인가 정서인가?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초보적 논의」, 『현대사학』, pp. 37-48.

착하기 어려운 주체들의 내밀한 정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구술자들의 생생한 삶의 궤적이라는 경험적 질료를 스피노자의 철학적 틀과 ‘마주치게’(Occursus/Encounter) 하는 이 인문사회 융복합적 실험이야말로 사회과학의 현상 분석을 넘어 인문학적 사유의 깊이까지 들어가 분열된 노동의 이면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직-업 분리는 어떤 역사적 조건에서 구조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민의 노동은 어떻게 분화되었는가? 둘째, 직-업 분리가 일상화된 조건에서 인민 개개인의 코나투스(Conatus)는 어떤 양태로 발현되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들을 통해 인민의 코나투스(Conatus)가 축소, 방황, 적응이라는 서로 다른 궤적으로 분기하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2. 분열된 노동: 국가의 ‘긴박과 방치’의 이중 지배

본 연구가 포착한 북한 노동자들의 ‘직-업 분리’, 즉 국가가 할당한 공식 직장(직장)과 생업을 위한 사적 노동이 분리되는 현상은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주로 단순한 제도적 이탈이나 시장화로의 이행 징후로 서술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스피노자의 존재론에 기반하여, 북한의 직-업 분리를 단순한 이탈이 아닌 ‘노동의 분열’로 규정한다. 즉, 이는 국가의 압도적인 반생명적 정치(potestas)에 맞서 자신의 존재 역량을 보존하고 확장하려는 개별 주체들의 실존적 코나투스(Conatus)가 발현된 결과로 이해할 것이다.

스피노자에게 양태(modus), 코나투스(conatus), 포텐치아(potentia), 포테스타스(potestas)는 긴밀한 연관망을 형성한다. 양태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별적 존재를 가리키며, 이들은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 실체의 변용이다. 양태들은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구성하고 변

용시키는 존재이다. 각각의 양태는 자신을 무화하려는 외부의 힘에 맞서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성을 지니는데, 스피노자는 이를 ‘코나투스’라 부른다(『에티카』 3부 정리6). 코나투스는 단순한 신체적 생존 본능이 아니라 존재를 존재로서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다. 코나투스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역량이 포텐치아이다. 그런데 이 포텐치아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제도적·정치적 힘이 존재하며, 이를 포테스타스라 한다. 포텐치아와 포테스타스가 충돌할 때 주체는 역량의 증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험은 곧 정서(affectus)이다. 포테스타스에 의해 포텐치아가 억압당할 때 주체는 슬픔(tristitia)을 경험하고, 역량이 증대할 때 기쁨(laetitia)을 경험한다(『에티카』 3부 정리11 주석).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스피노자적 개념 체계를 분석의 렌즈로 삼아, 미시적 직업세계의 균열과 그 틈새를 비집고 투쟁하는 주체들의 생명력을 존재론적 층위에서 포착하고자 한다.

2.1. 고난의 행군 이후 ‘직·업 분리’의 고착화

고난의 행군과 대아사의 참사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를 넘어 북한의 직업 구조와 노동의 존재 양식에 근본적인 변동을 초래하였다. 2000년대 이후 북한 사회는 계획과 시장이 불완전하게 공존하는 이원화된 경제 국면의 전개와, 수령독재 체제가 사적 이권 및 지대 수취 구조와 결합하는 사회주의 수령제적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의 고착화라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¹³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갑작스러운 파국이 아니라, 1980년대에 저성장과 뇌물과 부패의 만연 등 체제 위기의 징후¹⁴는 이미 드러나

13 양문수(2010),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파주: 한울아카데미; 김병연·양문수(2012),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Kim, B.-Y., & Kim, M. J. (2016), "The evolution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Seoul Journal of Economics* 29(4); 박형중(2012),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6(5); 박형중(2011),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20(1).

고 있었다. 1970년대까지 유사일체화(quasi-alignment)¹⁵ 상태에 있던 국가-인민 코나투스(conatus) 사이에는 1980년대 들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누적된 직업사회의 내부 균열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파국적 과정을 거치며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다.

과거 국가 코나투스(conatus)와 인민 코나투스가 맺고 있던 ‘유사일체화’는 근본적으로 변용되기 시작하였다. 국가 배급망이 실질적으로 마비되고 8·3 노동자가 대거 출현했다. 결국 국가가 부과한 공식적 직분(職, state-assigned post)과 신체적 존속을 위한 사적 생업(業, subsistence labor)의 전면적인 구조적 분리로 귀착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는 인민의 정치적 생명을 여전히 강력하게 긴박(capture)하면서도, 육체적 생명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방치(abandonment)하는 모순된 태도를 취하였다. 그 결과 인민은 국가를 위한 노동과 자신의 생존을 위한 노동을 수행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내적 분열은 곧 직분과 생업의 괴리로 나타난다. 본 절에서는 국가의 인민에 대한 긴박과 방치의 이중 지배구조와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노동의 분열과 직-업 분리를 초래하고 고착화시켰는지, 그 결과 인민들이 어떻게 세 가지 유형의 노동 주체로 분화되었는지를 서술한다.

기존 연구들은 노동의 분열을 주로 여성의 시장 진출이나 장마당세대, 젠더화된 노동분업이라는 측면에서만 논의하면서 분열된 노동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간의 인과성을 간과하였다. 이 논문은 이원론적 생명론과 노동 자

14 2025년도 국사편찬위원회, 『1980~2010년대 공장구성원들의 직업생애에 투영된 북한 공장의 역사』, 『이기술(가명) 편』. 이 구술자료에 따르면, 1976년부터 무산광산에 입직하여 근 40여 년간 근무한 이기술(가명, 연합기업소 기술자)은 1970년대는 충성의 시대였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 너물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술회한다. 김화순, 「8.3노동의 기원: 1970~1990년대 북한 인민의 직업생활」, 『미간행논문』, pp. 12~21.

15 유사일체화(quasi-alignment)라는 개념은 연구자문회의에서 스피노자 연구자인 진태원이 제안하고 본 논문에서 이를 채택하였다. 2026년 2월 10일 ‘스피노자로 민중을 사고하기’ 연구자문회의.

체의 존재론적 분열 간의 인과적 연계성에 주목하여 아래 젠더화된 노동분업화라는 현상에 접근할 것이다.

2.2. 직업구조의 변동과 젠더화된 분업(1993 vs 2008)

인구센서스 데이터가 말하는 직종변동의 의미

1993년과 2008년의 북한 인구센서스를 비교하면¹⁶ 지난 15년 사이 직군별·성별 구성이 극적으로 재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노동자군에서 나타난 성비의 역전 현상이다.

1993년에는 여성 취업자 중 노동자군의 비중(66.35%)이 남성의 그것(59.91%)보다 높았으나, 2008년에는 남성 54.1%, 여성 47.3%로 역전되었다. 여성 취업자 중 노동자군 비중이 약 20%p 가까이 급감한 이 인구통계적 변화는, 고난의 행군 이후 인민의 생존 전략이 성별에 따라 완전히 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의 배경에는 국가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성별에

[표 1] 직군별 성별 구성 변화(1993-2008)

직군	1993년 남성	1993년 여성	2008년 남성	2008년 여성
노동자군	59.91%	66.35%	54.1%	47.3%
사무원군	17.59%	9.07%	15.7%	12.8%
농민군	22.50%	24.58%	30.2%	39.9%

출처: UNFPA 1993, 2008 인구센서스를 참조하여 1993년 기준으로 직종분류를 필자가 재구성¹⁷

16 2008년 이후 직종별 인구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 인구센서스는 실시되지 않았다. 북한은 2023년 자체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없었다.

17 중앙통계국(20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8년 인구일제조사 보고서』, 평양: 중앙통계국; UNFPA (2009), DPRK: Final Report on the Enumeration of the 2008 Population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한 ‘이원적 긴박정책’이 자리하고 있었다. 즉, 국가는 여성의 신체는 비교적 느슨하게 속박한 반면, 남성의 신체는 소속 단위(單位)에 더욱 강력하게 결박하는 이원적 통치술을 발휘했다. 남성은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생명을 사수해야 하고 여성은 육체적 생존에 머물러도 무방하다는 식의 차별적 생명체론은, 역설적으로 여성들에게 체제로부터 탈주할 수 있는 일종의 공간으로 작용했다.

가부장적 체제에서 여성을 부양받는 자로 규정하던 전통적 성별 정체성이, 도리어 여성들로 하여금 공식 직장을 합법적으로 이탈하여 사적 생업에 종사할 시간을 벌어 주는 기제로 작동한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다. 반면 남성은 배급, 즉 육체적 생명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의무, 동원, 정치적 검열과 처벌 등으로 인해 소속 단위를 이탈하기 어려웠으며, 국가가 부과한 직분에 긴박된 채 노동이 강제되었다.

결과적으로 제도상 ‘부양’, 즉 부양받는 자의 명분으로 퇴직한 여성이 장마당 등의 생업에 투신하여 형식적 정치 생명만을 유지하는 남성 세대주를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이른바 ‘전도(顛倒)된 부양’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 인민들은 공허한 직분(職分)과 비공식화된 생업(生業) 사이에서, 그리고 육체적 생명과 정치적 생명의 해소되지 않는 괴리 속에서 존재론적 분열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젠더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것이 바로 개별 주체의 내면에 아로새긴 존재론적 분열의 실상이다.

2.3. 보상체계의 변형: 차별적 식량배급의 심화와 지대

배급제도는 붕괴되었는가? 통일부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6,350명의 72.2%가 배급을 받아본 적

Census, Bangkok: UNFPA, 1993년과 2008년의 직종체계가 상이하여 필자가 1993년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없다고 응답했다.¹⁸ 그러나, 배급제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대상에 따른 공급격차가 심화하는 방향으로 변형되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식량배급 실태에 관해, 입쌀비중, 배급의 정기성 등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를 하였는데 이 자료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은 배급의 양극화현상이다. 최근에 올수록 수혜대상의 수가 줄어들고 정기수급자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2000년 이전 29.6%에서 2016~2020년 59.8%).

배급수혜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 선별되는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평양 거주자에 대한 특별대우이다. 또, 직종에 따른 배급격차도 크다. 식량배급을 가장 많이 받은 직군은 농장원(48.5%), 사무원·교원(42.7%), 행정일꾼·보안원·군인(39.7%)의 순이다. 반면에 노동자(37.1%)와 무직·기타(27.6%)는 배급을 가장 적게 받았다(표 2 참조).

[표 2] 북한의 직업별 식량배급 경험 비율 및 인원(단위: %, 명)

직군명	인원	식량 배급받은 경험 있음		모름/무응답		합계 검증 (%)
		%	인원	%	인원	합계(%)
직군명	인원					
노동자	1880	37.1	697	1.3	24	100
농장원	561	48.5	272	1.6	9	100
행정일꾼·보안원·군인	242	39.7	96	2.5	6	100.1
사무원·교원	362	41.7	151	1.4	5	100
특수직종 ¹⁹	375	37.3	140	1.3	5	99.9
무직·기타	2930	27.6	809	1.8	53	100
합계	6350	34.1	2165	1.6	102	100

출처: 통일부(2024),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p. 162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18 통일부(2024),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서울: 통일부, p. 161. 배급을 받지 못한 72.2%는 2016~2020년 탈북민 집단의 응답이다.

19 이 보고서에서 특수직종이란 해외파견일꾼, 봉사원, 의사, 간호사, 약사, 문화예술체육인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통일부(2024), p. 44.

배급의 질적 차이도 선명하다. 평양 거주자의 배급 품목 중 입쌀 비중은 53.2%인 반면에 접경 지역은 23.6%로 절반에 불과했다. 직군별로 보면, 간부들(행정일꾼·보안원 등)은 연간 92.2kg의 입쌀을 배급받는 반면, 노동자는 50.4kg으로 최하위를 차지한다.²⁰

그렇다면, 정치신분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아쉽게도 이 조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결과가 없어 정치신분의 하위변수 중 하나인 기업신분²¹에 따른 배급량을 통해 추정해보았다. 박영자 외(2016)²²의 기업유형사례별 식량 배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다. 중앙 직할 기업(1급~3급)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정기적인 배급을 받았고 때로는 가족까지 배급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산업에 속한 기업(4급~7급)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당사자도 배급을 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지방산업 노동자의 신체는 노동의 보상 체계로부터 가장 철저히 소외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급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지역, 직군, 기업 유형에 따른 식량 공급의 격차가 극심해지는 양상을 띤다. 기업별, 직군별, 지위별 보상이 차별화되고 식량 배급의 책임이 개별 단위로 전가되면서, 노동의 보상은 공식적인 노동 제공 여부가 아니라 공장·기업소 등 각 단위가 지닌 각종 이권(利權)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는 노동자에게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며 사회정치적 생명과 충성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반면, 노동

20 배급경험자 1,795명을 대상으로 직군별 입쌀 배급량을 조사한 결과, 농장원 96.4kg, 행정 일꾼·보안원·군인 92.2kg, 특수직종 75.9kg, 사무원·교원 72.8kg, 무직·기타 60.5kg, 노동자 50.4kg 순이다. 통일부(2024), p. 163, 〈표 3-3〉. 입쌀의 배급량, 배급량 수치는 배급 경험자 중 배급량 문항에 응답한 1,795명 기준임. 원자료의 모수는 1,795명으로, 배급 경험자 추정치(전체 6,350명의 34.1%, 약 2,165명)보다 적다. 배급량 문항의 무응답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21 '기업신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는 정치학자 박형중이다. 박형중(2023), 「김정은시대 북한주민의 직장생활」, 통일연구원 워크숍 발표논문(5월 25일).

22 박영자·조정아·홍제환·현인애·김보근(2016),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서울: 통일연구원. 이 연구는 기업유형별로 경영 및 노동 실태를 추적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표 3] 기업 유형별 노동자 배급실태

기업 유형	소속 및 등급	주요 배급 품목	배급 주기 및 양상	특징
중앙 직할 기업(수출형)	특급~2급(광업, 금속 등)	입쌀, 옥수수, 식용유, 밀가루, 설탕 등	상대적 정기성: 외화벌이를 통해 중국 등에서 식량을 수입하여 공급	노동자 가족까지 배급 범위 확대되는 경우 존재(예: 무산광산)
중앙 직할 기업(내수형)	1급~3급(탄광, 전력 등)	옥수수 위주	불규칙적: 계획 수행 정도에 따라 본인 위주로 지급.	출근 시에만 지급하는 등 강제 노동의 수단으로 활용
지방 기업	4급~7급(식료, 일용품 등)	된장, 간장, 과자 등 기본 식료품	비정기적: 명절 공급이나 자체 가동 시에만 일시 지급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어 '자력생생' 명목으로 방치됨
특수 기관 산하(수출/건설)	대외건설지도국 등	(간부) 쌀, 기름 / (노동자) 소량 배급	비대칭적: 노동자는 월 7일분 수준이나 간부는 '더벌이' 수익으로 고보급	해외 파견 시 수익을 통한 미래 보상 성격이 강함

출처: 박영자 외(2016) 연구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의 보상이나 인민의 육체적 생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책임을 방기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식량 배급의 차별화는 직(職)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의 한 단면일 뿐이다. 통일부 자료가 보여주듯 배급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대다수 인민은 부업, 장마당, 8·3 활동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이중경제 구조에 결합되어 있다. 본 연구가 추적하는 코나투스³의 세 양태는 이 보편적 이중경제 조건 위에서, 각 노동 주체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보존을 도모하는 양태들이다.

이처럼 공식적 보상 체계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민은 어떻게 하는가? 인민은 국가의 계획에 순응하는 대신 각자가 점유한 위치(position)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한다. 인민은 이권에 개입하거나 시장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생존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자기를 보존하고자 한다. 지위적 지대(positional rents)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

에서 개별 코나투스²³는 크고 작은 먹을 알을 획득하기 위한 플랫폼(platform)을 확보하는 양태로 발현된다. 이는 각 노동 주체들이 자신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존재의 지속을 위해 사활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배급제의 실질적 마비는 새로운 지위적 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상호 투쟁으로 이어진다. 북한 주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먹을 알 있는 자리’라는 용어는 이러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먹을 알’이란 직업적 직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비공식적 이권을 의미한다. 가령 부기나 창고장은 물자를 유용할 수 있고, 검열원은 뇌물을 수수할 수 있으며, 운전수는 차량을 이용하여 사적 상행위에 종사할 수 있다. 이제 직업 지위는 기능적 분업으로서의 의미가 퇴색하고, 먹을 알의 유무에 따라 재위계화(re-hierarchized)되었다. 즉, 직업 지위는 시장의 잉여를 전유하여 생존 자원을 확보하는 일종의 지대 수취플랫폼(Position as a Rent-platform)으로 변용된다.

이러한 이권은 모든 직위에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당비서, 지배인, 부기, 창고장, 보안원, 보위부 일꾼 등 특정 단위의 특정 직위에 지대가 집중되는 반면,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일반 노동자와 농민, 근로 인텔리는 이권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는 구조로 변용되었다. 돌아보건대 2000년대 이후 북한 사회는 전통적인 성분 중심의 정치적 신분 위계에 지대 수취권 중심의 위계 사회가 덧씌워진 기묘한 사회로 변화하였다. 기존 북한 계층 연구가 정치 신분이나 재력 등을 변수로 중시하되 직업 지위를 분석 변수로 삼을 수 없었던 이유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직업사회에서 공식적 직업 지위는 더 이상 지위와 소득, 자원 접근을 안정적으로 대변하는 지표가 아니었으며 공허한 기의가 되었다.²³

23 본 연구가 식량 배급 자료에 초점을 둔 것은 직(職)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의 차등화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배급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대다수 인민이 부업, 장마당, 8·3 활동 등 직장 외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즉 이중경제 구조에 보편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은 본 연구가 추적하는 코나투스 분화의 환경적 조건이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20)의 비공식경제활동참여율 91.7%라는 수치는 이 점을 단적으로 상징한다.

2.4. 이데올로기의 강화: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서 유일사상령도체계로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을 위계화하는 존재론적 명제이며,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위계가 사상교양의 차원을 넘어 노동 통치를 정당화하는 구조적 회로로 작동해왔다는 점이다. 정치적 생명의 우위라는 명제는 두 가지 통치 효과를 산출한다. 첫째, 국가는 정치적 생명의 영역—소속 단위에의 결박, 조직생활 참가, 정치학습, 동원 응소—에서 인민의 신체를 절대적으로 긴박할 정당성을 확보한다. 둘째, 국가는 육체적 생명의 영역—식량 배급, 주거, 생계 부양—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차적인 것으로 격하할 명분을 얻는다.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에는 직장 출근이 곧 배급으로 이어졌기에 직(職)과 업(業)이 분리될 필요가 없었으며, 이 이중구조의 통치 효과는 표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가 붕괴하면서 국가는 육체적 생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면서도 정치적 생명에 대한 긴박은 오히려 강화하였고,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이 모순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재기능하였다. 노동의 분열, 즉 직-업 분리는 이 이중구조가 노동 영역에서 발현된 구체적 형태이다. 직은 정치적 생명의 회로에서 국가의 긴박 대상이 되고, 업은 육체적 생명의 회로에서 인민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방치된다. 본 연구가 추적하는 코나투스³⁾의 세 양태—축소, 방황, 적응—는 바로 이 이중구조 내에서 인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의 발현이다.

역설: 육체적 생명의 방치와 정치적 생명의 강화

역설은 국가가 육체적 생명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바로 그 지점에 정치적 생명에 대한 긴박은 더욱 강화되고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는 데 있다. 1986년 7월 15일 공식화된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수령-당-대중을 하나의 유기체로 규정하고, 개인의 육체적 생명보다 집단의 정치적 생명을 상

위에 놓았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이 이데올로기적 긴박은 더욱 엄혹해졌다. 2013년 개정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제8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말며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8조에서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이 명제는 육체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이 우선한다는 존재론적 위계에 대한 선언이다. 그 정치적 생명을 담아야 할 육체적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식량 배급은 대다수 인민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인민에게 ‘굶어 죽더라도 정치적으로 충성하라’고 요구한다. 존재를 말살하는 국가의 요구 앞에서 인민들은 국가코나투스로부터 부스러져 떨어져 나오면서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분리된다.

유일사상령도체계의 강화: 10대원칙의 변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²⁴은 1974년 4월 14일 제정되어 2013년 6월 19일, 2021년 9월에 개정되었다. 이 문건의 변천은 정치적 생명에 대한 긴박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1974년에 수령은 김일성 한 사람이었다. 2013년 개정본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24 조선로동당(2021),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2021년 9월 개정), 국가정보원 편, 『북한법령집 5』(2022) 재인용.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규정하는 최상위 규범인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은 1974년 제정 이후 2013년과 2021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특히 2021년 9월의 개정은 정치적 생명에 대한 긴박을 더욱 정교화하며, 인민의 코나투스를 국가 권력(potestas)에 종속시키는 일체화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도록 하여 수령이 복수화되었다. 동시에 제10조에서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라는 조항이 추가되어 권력의 세습을 공식화하였다.

여기서 본 연구의 관심사는 제8조이다. “정치적생명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라는 이 명제는 1974년 원본에도 있었지만, 2013년 개정에서 더욱 강조되기에 이른다. 특히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제 때에 수행하며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개별 주체가 소속 조직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인민의 신체를 단위(單位, Work Unit)에 더욱 강력하게 결박한다.

이 연구는 이를 주체의 활동 역량을 억압하고 체제에 예측시키는 ‘반생명정치’(the politics against life)의 발현이라고 규정한다.

존재론적 선택의 강요: 반생명의 정치

본 연구는 스피노자적 관점에서 지난 30여 년간의 북한 인민이 처한 상황을 ‘반생명정치’라고 주장할 것이다.²⁵ 북한의 반생명정치는 생명을 이원화하고 다시 정치적 생명의 이름으로 육체적 생명을 희생시키는 통치를 한다. 국가는 인민의 신체(corpus)를 소속단위에 결박하는 강제력 즉 포테스타스(Potestas)를 유지한다. 그러나 그 신체의 육체적 생존을 위한 물질적 기반은 각자가 알아서 할 몫이다. 직분을 선택한 자들은 육체적 생명을 돌보지

25 푸코(M. Foucault)는 생명정치(biopolitics)를 인구의 생명을 관리하고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권력으로 정의했다. 박영자(2005)는 이를 북한에 적용해 신체 통제와 규율화를 분석했고, 김태진(2018)은 북한의 유기체적 통합 담론을 추적했다. 본 연구는 박영자의 연구와 맥락을 공유하나, 신체 통제를 넘어 스피노자의 정서론에 기반해 정서적 통제까지 포괄한다. 더 근본적인 차별성은 푸코에 있다. 푸코의 생명정치가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이라면, 본 연구는 생명을 방기하는 권력을 분석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이를 명료화하기 위해 ‘반생명정치(the politics against life)’로 명명하였다. 박영자(2005), 「북한의 생체정치(bio-politics): 신체 통제와 규율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7(3).

못하며, 생업을 선택한 자들은 정치적 생명을 방기해야 한다. 인민은 양자택일 구조 앞에서 갈등하며 분열한다.

북한 인민은 국가에 의한 긴박(Capture)과 방치(Abandonment)라는 모순적 통치 구조 아래 매 순간 존재론적 결단을 강요받는다. 정치적 생명은 국가가 부여하고 포획하는, 수령-당-대중이라는 유기체의 일부로서의 생명이다. 이는 단위예의 소속, 조직생활 참가, 정치학습 등을 통해 증명된다. 반면 육체적 생명은 실제로 먹고 살아야 하는, 개별 신체의 생명으로, 장마당, 뇌물, 절취, 8·3 활동 등을 통해 유지된다.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 이 두 생명은 직업을 매개로 통합되어 있었다. 직장에 출근하면 배급을 받고, 배급으로 생존했다. 직(職)과 업(業)이 하나였다. 그러나 배급제가 붕괴하면서 직과 업은 본격적으로 분리되었다. 국가가 부여한 직분(職分)은 정치적 생명을 증명하는 형식적 껍데기가 되었고, 살아있는 육체적 생명을 부양하는 생업(生業)은 장마당을 비롯한 비공식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노동자에게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은 두 곳에 있어야 한다. 직분과 생업이 분리되면서 노동이 분열되고 존재도 분열된다.

국가 코나투스과 인민 코나투스의 관계의 변용

고난의 행군 이전, 국가의 코나투스와 인민의 코나투스는 ‘유사일체화’(quasi-alignment) 상태에 있었다. 한 인텔리는 이 시기를 가리켜 “국가의 꿈과 나의 꿈이 일치하였다”(The dream of the state and my dream were one and the same)고 회고한다. 국가가 약속한 보상—배급, 주택, 신분 상승—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 인민의 코나투스는 국가의 코나투스와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신체를 이룬다. 이 회고는 유사일치의 시기에 인민들이 국가와의 상상적 동일화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이후 국가-인민의 코나투스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용되었다. 국가라는 복합적 코나투스로부터 개별 코나투스들이 떨어져 나왔고, 인민들은 더 이상 국가 유기체의 세포가 아니다. 그들은 각자도생하는 개체화된 코나투스가 되었다.

이 개체화된 코나투스스는 능동적 정서가 아니라 수동적 정서 상태에 있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이 외부 원인에 의해 자신의 역량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할 때 슬픔(*Tristitia*)을 느낀다. 인민들은 국가의 포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직장에 적(籍)을 두어야 하고, 동원에 응해야 하고, 정치적 검열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각자의 생존을 위해 고투해야 한다. 한정된 먹을 알을 둘러싸고 인민들은 서로 경쟁하고 투쟁은 격화된다. 스피노자가 『에티카』 3부 정리32에서 지적한바,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즐긴다고 우리가 상상하면, 우리는 그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인민 간의 수평적 적대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인민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한, 그들은 결코 국가에 대항하여 연대할 수 없다. ‘분열된 노동’은 생존투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생존불안사회로 가는 존재론적 조건을 이룬다.

2.5. 세 가지 노동주체의 분화

직-업 분리가 구조화된 조건에서, 인민의 코나투스스는 다음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양태로 분화되었다.

직업형(職業型) 노동주체(positional rent workers)

먹을 알을 차지한 자들이다. 직업형 노동자이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위로 먹고사는 지위지대형 노동주체이다. 공식적 직분과 실질적 생업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당비서, 지배인, 부기, 창고장, 기사장 등 먹을 알 있는 자리를 차지한 기업소 내 관리성원이나 보조성원들이 이에 해당한다.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비공식적 이권을 확보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주의 모자를 쓰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사적 전유를 행한다. 그들의 코나투스스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소속 단위를 부양하기 위한 필사적인 플랫폼 유지보수 노동으로 발현된다.

직분형(職分型) 노동주체(post-bound workers)

긴박된 유명들이다. 국가가 부여한 정치적 생명과 직위는 유지되지만 물질적 보상이 결여된 영역에 종사한다. 주로 가동률이 낮은 지방 산업 공장의 무급 노동자 혹은 노동에 비해 극히 낮은 보상이 주어지는 노동자들이다. 국가적 동원 사업에 무상 노동을 제공하며 직장에 긴박되어 있다. 정치적 생명은 유지하되, 육체적 생명은 타인의 부양에 의존한다. 이들은 국가의 포테스타스에 의해 신체가 포획되어 정치적 생명의 인질이 된 상태이며, 코나투스가 만성적으로 위협받는 수동적 정서의 상태에 놓여 있다.

생업형(生業型) 노동주체(subsistence workers)

탈주하는 신체들이다. 정치적 생명을 유보한 채 육체적 생존을 위해 사적 경제 활동에 종사한다. 장마당 상인, 일공(일용직), 8·3 노동자, 돈주,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의 탈주는 체제의 포테스타스가 강요하는 정치적 생명을 버리고 주체 자신의 포텐치아를 보존하려는 원초적인 코나투스의 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탈주가 곧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직장에 적(籍)을 두어야 하고, 8·3 돈을 바쳐야 하며, 단속과 검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 세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직분형 노동주체는 육체적 생존이 불가능해지면 정치적 생명을 포기하고 생업형 노동주체로 전회(轉回)한다. 생업형 노동주체와 직분형 노동주체는 서로 순환하거나 역주행한다. 이러한 유동성은 체제에 이중적 효과를 미친다. 한편으로 인민들의 탈주는 공장체제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체제의 물적 기반을 잠식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탈주가 개인적·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그것은 체제에 대한 집합적 저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각자도생의 생존 전략에 머문다. 국가는 바로 이 지점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다.

3. 긴박된 노동자들: 작아지는 코나투스

구조는 그 자체로는 말하지 않는다. 구조가 사람의 몸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것은 삶이 되고, 고통이 되고, 선택이 된다. 이 장에서는 신철(가명, 1987년생)의 생애를 따라가며, 직-업 분리의 구조가 ‘직분형 노동자’(post-bound workers)에 속한 노동자의 존재를 어떻게 관통하는지를 추적한다.

3.1. 성분의 닛과 아버지의 굶은 허리

신철은 량강도의 복잡한 군중에 속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시기, 국군 장교의 총구 앞에서 이승만 만세를 불렀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으나 전쟁이 끝난 뒤 ‘반동’이라는 낙인이 되어 아버지와 신철에게까지 대를 이어 내려왔다. 신철은 억울하다.

할아버지가 그때 이승만 만세를 부른 게 아니라, 물자를 안 빼돌리려고 만세를 부른 건데… 그때부터 성분에 찍혔죠. 반동분자. 그게 아버지한테, 저한테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에 외할아버지의 총살과 여동생의 탈북이 겹쳤다. 세 겹의 낙인이었다. 북한에서 복잡한 군중에 속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대를 이어 지방산업이나 농촌 등 먹을 알이 없는 자리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성분은 코나투스가 발현되기 이전에 그 역량의 상한선을 긋는 외부적 조건이며, 동시에 직업형·직분형·생업형 분화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구조적 변수이다. 그럼에도 신철은 열 해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입당을 꿈꿨다. 조상의 낙인을 자기 세대에서 지워보겠다는 소망이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 의학적 제대를 해라.’ 그

런데 저는 안 들었어요. 무조건 입당해서 간부가 될 거라고. 10년 복무했는데… 결국 [입당은 했지만 간부까지는] 안 됐죠.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토대의 벽은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신이 평생을 그 벽 앞에서 부딪혀왔기 때문이었다. 신철의 아버지는 철강기계 연합기업소에서 평생을 보냈다. 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그 쇳물을 틀에 부어 불도저의 주물바퀴를 찍어내는 기술자였다. 일 솜씨가 좋았고, 기업소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고정한 분’이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불도저 바퀴를 찍어내라는 국가의 지시는 계속 내려왔지만 그것을 가져가는 곳은 없었다. 노동자들은 쇳물이 남을 때 무쇠가마, 절구, 아궁이들 같은 부산물을 만들어 장마당에 내다 팔았다. “아버지가 만든 건 무쇠가마, 절구 같은 거… 장마당에 내다 팔면 술 벌이나 조금 하는 정도예요. 가정에 도움은 되지 못하고. 어머니가 다 벌어서 먹여 살렸죠.” 국가는 아버지의 몸을 공장에 묶어두었지만, 그 몸이 만들어내는 것의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았다. 신체는 포획하되 생존의 물질 기반은 박탈하는 구조 아래서, 아버지의 코나투스²⁶는 공장 안에 갇힌 채 술 벌이만큼의 역량으로 축소되었다. “평생을 바쳤지만 아버지한테 남은 게 뭐냐면, 굽은 허리밖에 없어요. 국가 일에 뼈를 갈았는데, 그것만 남은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는 굽은 허리만 남았다. 국가의 코나투스에 자신의 코나투스를 일체화시켰던 인간이, 그 일체화가 해체된 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²⁶ 신철은 이 장면을 보면서 결심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안 되겠다고. 그러나 그 결심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현되는 데에는 민방위초소에서의 6개월과 수산물직매점에서 2년이 더 필요했다.

26 스피노자, 『에티카』, 4부 정리37 주석2. 스피노자는 여기서 국가와 그 법에 의해 보호받는 시민들의 관계를 설명한다. 국가란 개인의 코나투스가 결합하여 형성된 공통 역량이 다. 스피노자는 국가의 코나투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코나투스라는 조작적 정의를 사용할 것이다.

3.2. 먹을 알의 작동과 버티는 자들

군대에서 제대한 신철이 처음 배치된 곳은 민방위초소였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안면’관계와 당비서에게 건넨 담배 한 보루가 만들어준 자리였다. 국경 지역의 야간 순찰을 담당하는 곳으로, 밀수꾼을 단속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런데 이 단속이라는 직무에는 제2장에서 논의한 ‘먹을 알’, 즉 지위적 지대가 붙어 있었다. 신철은 이제 밤마다 순찰을 돌다가 밀수꾼을 잡았고, 신고하는 대신 돈을 뜯었다. 한 번에 20위안에서 50위안. 하룻밤에 50위안에서 120위안의 수입이 가능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무쇠가마를 만들어 술값을 벌 때, 신철은 밤마다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이 수입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단속하는 권력의 대가였다. 민방위초소 소속이라는 직분이 부여하는 단속 권한, 그리고 그 권한을 비공식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지대구조가 ‘먹을 알’의 실체였다. 그러나 먹을 알은 지속되지 않았다. 국경이 봉쇄되자 밀수가 끊겼고, 밀수가 끊기니 뜯을 돈도 사라졌다. 동시에 야간 근무가 신철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추운 겨울 밤마다 국경을 돌다가 위폐양이 악화되었다. 약 6개월 만에 신철은 민방위초소를 떠났다. 먹을 알은 구조적 조건에 의존하며, 그 조건이 변하면 소멸한다. 노동자뿐이라. 직업형 관리자 역시 먹을 알을 전유하더라도 그것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민방위초소를 나온 신철이 다음에 들어간 곳은 소규모 수산물직매점이었다. 여자 지배인에 직원 열두 명. 이곳에서 신철은 약 2년을 보냈다. 직분은 있으되 실질적 보상은 거의 없는, 긴박된 존재의 시간이었다.

아침 7시에 집에서 출발해요. 8시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초상화 닦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분의 초상화를 ‘정성수건’으로 닦아요. 그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먼저 정치 이야기가 나와요. 당에서 내려온 지시사항, 충성의 자금 얼마 바치라, 학습 과제. 그다음에 업무 지시. 창고

정리하라, 화단 잡초 뽑으라, 배수로 파라. 조회가 15분에서 한 시간까지 걸려요. 11시 반에 점심 먹으러 집에 가서 한 시 반에 돌아오고, 5시에 퇴근이에요.

신철의 하루는 매일 아침 세 지도자의 초상화를 정성수건으로 닦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의례 뒤에 이어지는 조회에서는 정치가 먼저 나오고, 실제 업무는 그다음이다. 창고 정리, 화단 잡초 뽑기, 배수로 파기. 이것이 수산물직매점 노동자의 노동이었다. 배급은 6개월에 한 번, 옥수수 30~40킬로그램, 가끔 생선 10킬로그램. 신철은 직매점의 본업인 수산물 유통에 편승해 장사를 해보려 했다. 지배인이 생선을 운반할 때, 자기도 함께 물건을 실어 다른 지역에서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지배인이 안 된다고 했어요. 자기만 장사하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료들도 다 비슷한 시도를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결국 다 나가기 시작했죠.

지배인은 제2장에서 분석한 직업형 관리자의 전형이다. 기업소의 공식적 기능을 사적 이익의 통로로 전용하면서, 국가의 계획이나 사회적과제의 요구에 응하지만 휘하 노동자들에게는 그 통로의 접근을 차단한다. 신철과 동료들은 이 구조 안에서 경제적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다. 신철은 출근 일수의 약 70퍼센트만 직매점에 나가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밖에서 품팔이를 했다. 밀수집 운반, 건설현장 일용직, 광석 상차. 하루에 10위안에서 20위안의 벌이었다. 직장에는 몸을 보이되, 생존은 직장 바깥에서 해결하는 이중생활을 지속해야 했다.

3.3. 동의 무게: 분뇨 800킬로, 파철 100킬로

수산물직매점에서의 노동은 창고 정리와 화단 가꾸기만이 아니었다. 기업소 소속 노동자라면 누구나 저야 하는 ‘사회적 과제’가 있었다.

분뇨과제가 연간 1인당 800킬로예요. 겨울에 모아야 해요. 저는 직접 모으기 어려우니까 소달구지로 200~300킬로를 15~20위안에 사서 냈어요. 파철과제는 100킬로인데, 돈으로 대납하면 30위안 정도예요. 풀비료는 여름에 구덩이 파서 풀이랑 흙을 겹겹이 쌓는 거고, 나무심기는 5월에, 철도 보수도 수시로 동원되고…

분뇨 800킬로그램, 파철 100킬로그램, 풀비료, 나무심기, 철도보수, 도로정비. 여기에 연간 1개월의 교도대훈련이 추가된다. 이 모든 과제는 노동이 아니라 의무이다. 조선시대에 국가가 백성에게 부과했던 조·용·조 중에서 용(庸)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급이라는 보상 없이 부과되는 국가에 대한 노역의 의무이다.²⁷ 배급은 거의 내려오지 않지만, 의무는 한 치의 어김없이 내려온다. 국가에서 해주는 게 뭐냐는 질문에 청년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만 있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의무가 너무 많아요. 당에 충성해야 하고, 수령님께 충성해야 하고, 기업소에 기여해야 하고, 직장에 성실히 나가야 하고, 국가에 충성해야 하고. 근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27 북한은 사회적 과제는 배급이라는 보상 없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 노역의 변형이라고 하겠다.

“지켜야 할 의무만 있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것은 제2장에서 분석한 반생명정치가 한 노동자의 입을 통해 실체화되는 순간이다. 국가는 신체를 포획하고 생존의 물적 기반을 박탈한다. 국가의 코나투스과 개인의 코나투스 사이의 허구적 일체화는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²⁸ 이 모든 의무를 지고 직장에 나간 신철은 어떻게 일했는지 물어보았다.

출근해도 크게 할 일은 없어요. 와서 앉아 있다가… 삼 세 번 뜨다가 시간을 때우다 퇴근이에요. 누가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는 동안만 삼 한 번 뜨고, 가면 앉아서 잡담하고. 그냥 시간 때우기죠.

삼 세 번 뜨고, 누가 소리 지르면 한 번 더 뜬다. 직장에 가면 앉아서 잡담하고 음담패설도 한다. “만약 북한 민중이 당과 수령의 명령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자기 보존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이²⁹기 때문이다. 자기 보존의 물적 조건이 충족될 때 인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 그러나 그 조건이 박탈된 상태에서, 노동자에게 가능한 노동은 무엇인가. 신철의 ‘삼 세 번’은 그 답의 일부나마 상상하도록 한다. 단련대라는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재 보존을 위한 노동.

출근 안 하면 법적 제재를 받으니까요. 3개월 무단결근하면 단련대에 보내는데, 거기 가면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게 무서워서 가는 거지, 사회가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 일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28 스피노자, 『에티카』, 3부 정리 11 주석에 따르면, 슬픔이란 정신이 보다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1950~70년대를 국가-인민 코나투스 간 유사일체화의 시대라고 전제한다.

29 진태원, 「북한 민중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스피노자주의적 시론」(미간행원고).

조정아는 1980년대 북한 공장 노동자들에게 나타나는 ‘느릿느릿’ 현상을 일상적 저항의 한 형태라고 해석한 바 있다.³⁰ 그러나 노동자의 ‘느릿느릿’함은 배급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 강도를 조절하는 행위자의 저항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30여 년이 지난 2010년대 현재, 신철의 삼 세 번과는 그 성격이 구분된다. 저항이라 하면, 거기에는 능동적 역량의 발현이 있어야 한다. 신철의 노동에는 그것이 없다. 단련대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가장 적은 에너지로의 존재 보존이다. 이 연구는 저항이 아니라 최소화된 코나투스³¹의 형태라고 해석한다. 체제에 의해 신체의 역량이 축소된 존재들. 그들의 코나투스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난장이가 된 것이다. 신철의 세대, 1980년대생들은 이 상황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술한다.

제 또래 60~70퍼센트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장에 왜 나가? 다 필요 없다. 돈을 벌어야 한다. 국가? 필요 없다. 내가 벌어서 잘 살아야 한다.’ 근데 그 말을 밖에서 하면 잡혀가요.

우리에게 국가는 필요 없다. 단, 그 사실을 발화하면 안 된다. 동네 형이 신철에게 말했다. “야, 바보야. 직장이 너한테 돈을 주냐, 배급을 주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벌 수 있으면 가서 돈이나 벌어.” 그러나 그 바보짓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직분형 노동주체들 공통의 비극이다. 공포에 의한 강제는 바보짓을 지속하게 만든다.

직분형 노동자로서의 2년이 신철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종일 일하고도 하루치 식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날들. 지배인의 장사 독점. 사회적 과제의 끝없는 무게. 삼 세 번의 노동. 이 모든 것의 총합으로서의 정서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30 조정아(2005), pp. 320-321.

그런 기분보다도... 솔직히 기분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기분보다도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종일 일해도 하루도 못 먹는 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뭐냐고.

‘기분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스피노자에게 정서(affectus)란 신체의 역량이 증대되거나 감소될 때 발생하는 이행의 경험이다. 그런데 신철은 슬픔조차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분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은, 정서가 발현되기 위한 최소한의 역량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것을 바닥난 정서, 혹은 정서의 소진이라고 부르자.³¹ 코나투스³²는 존재한다. 그러나, 정서적 무감각상태에서 오직 생존의 계산으로만 작동한다. 신철이 살던 도시 인근에서 작업반장의 아내로 살았던 영자씨의 증언은, 정서의 소진이 물질의 결핍에서 비롯된 구조화된 현상임을 확인해준다.

우리 작업반에 박경남(가명)이라고 있어요. 딸이 둘인데, 아침 한 때 딱 먹어요. 종일 일해도 그래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업반 25퍼센트는 그래요.

딸이 둘인 남자가 종일 일하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 작업반의 4분의 1이 그러하다. 이러한 증언은 왜 직분형노동자들이 현실 속에서 ‘기분을 생각할 여유’ 없이 살아가는지를 웅변한다.

31 이 연구에서 말하는 ‘정서의 소진’(affective depletion)이란 정서가 발현될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물질적 조건 자체의 부재를 가리키며 이는 소진(burn out)과 구분된다.

3.4.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8·3노동자로의 전환

아버지의 굶은 허리. 지배인의 거절. 형의 직언. 열심당원이었던 신철의 내부에서 끓어오르면서 하나의 결심으로 응축되기까지 제대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아버지가 일생을 일했는데, 국가에서 아버지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남은 게 없어요. 아버지한테 남은 거라고는 굶은 허리밖에 없어요. 국가 일에 뼈를 갈았는데, 그것만 남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기업소에서 이따금 부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8·3을 내고 돈을 벌어야 한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고생해서 키운 걸 보면서… 같은 길을 가겠구나 싶은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찢찢매는.

신철은 수산물직매점을 나와 관리사업소에 8·3 노동자로 등록했다. 6개월에 300위안, 연간 700위안을 납부하면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당 생활도 하지 않는다. 대신, 그의 정치적 생명은 유보된다. 직(職)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되, 업(業)을 전적으로 시장 영역에서 찾는 것. 이것이 직분형에서 생업형으로의 전환이며, 직-업 분리에서 살아가기 위한 또하나의 진로이다. 8·3 노동자가 된 신철의 삶은 수산물직매점 시절과는 전혀 달랐다. 초상화를 닦지 않아도 되었다. 조회도, 분뇨과제도, 충성의 노래모임도 없었다. 가을에는 잣밭 지기로 4개월간 일하며 2,500~3,000위안을 벌었고, 밤에는 밀수 짐을 졌다. 90~110킬로그램의 짐을 지고 밤에 강을 건넌다.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한 번의 도강횡단에 70~120위안 벌고, 한국 드라마를 밤새 즐길 수도 있다. 신철은 8·3 노동을 ‘진짜 일등공신 직업’이라고 평가했다. 떠난 수산물직매점은 신철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

그러나 수산물직매점은 국가가 잉여를 독점하고 배급이 미미한 공간이었으나 동시에 열두 명의 직원이 매일 얼굴을 맞대며 일하는 작은 공동체이기도 했다. 북한에서 직장은 제2의 가정이라 불린다. 신철 자신은 이를 ‘집단생활을 안 하니까 외로운 것도 있고’라고 말한다. 포테스타스(potestas), 코나투스를 억압하는 장치면서 동시에 코나투스가 기대는 최소한의 사회적 힘으로 작동한다. 이 양면성은 오늘날까지 많은 직분형 노동자를 직장에 붙들어두는 힘이기도 하다. 8·3노동자로의 전환 앞에서 멈칫거리게 되는 이유는 육체적 생명을 살리는 코나투스의 해방이자 정치사회적 생명을 유보하고 일탈하는 결단이기 때문이다.

3.5. 소결: 각성

신철은 10년간 군 복무를 하며 입당을 꿈꾸었고, 토대의 벽 앞에서도 체제의 논리를 놓지 않았던 청년이었다. 신철의 내면에서 충돌한 것은 두 개의 생명이었다. 한쪽에는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 심어준 오랜 믿음, 즉 수령과 당에 충성하면 정치적 생명이 보장된다는 사상교육의 축적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육체적 생명을 준 부모의 삶이 있었다.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평생을 일했으나 굶은 허리만 남았고, 어머니가 장사로 온 가족의 생존을 홀로 떠받쳤다. 신철은 문득 깨닫는다. 국가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기만해왔다는 것을. 정치적 생명을 제1생명으로 요구하면서, 그 생명을 담지할 육체적 신체를 유지할 식량도 자원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내면의 속삭임은 미래를 향한 결심인 동시에, 아버지가 국가에 바쳤던 생애가 배반당한 것이었음을 받아들이는 조용한 결별이다. 이 집단적 이탈자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세계는 어떤 곳인가? 생업형 노동자들이 떠도는 삶 안으로 함께 들어가보자.

4. 떠도는 자들의 세계: 방황하는 코나투스

제3장에서 신철의 생애를 따라가며, 직분형 노동자의 코나투스가 한 없이 줄어들다가 마침내 정치사회적 생명을 버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까지 동행하였다. 신철의 전환이 비교적 빨랐던 이유는 아버지가 ‘너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토대의 벽이 처음부터 보였던 사람은, 그 벽을 향해 돌진하지 않는다. 남성들은 8·3노동자로서 밀수, 금광, 사진촬영업 사장님이 되는 등의 다양한 이행경로를 보여준다. 다양한 8·3노동자 중에서 피복공장 여공인 한영실의 생애를 선택한 이유는 특별히 신의주 지역은 여성 일공들이 많고 이동도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 수출피복공장에서 준마처녀의 영예를 받은 봉제공이 ‘떠돌이 일공’으로 10년을 이 공장 저 공장을 부유하다가, 장마당으로 떠나 다시 공장으로 장마당으로 순환하는 양태를 추적한다. 4장에서는 ‘물 위에 뜬 깨알’이라고 영실 자신이 이름 붙인 삶의 궤적을 코나투스의 방황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다.

4.1. 떠돌이 일공이 된 준마처녀

한영실은 1980년대에 강원도에서 태어났지만 영실과 가족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신의주로 이사하게 되었다.³² 어머니가 영실이 졸업하자 얼마간

32 본 논문의 한영실은 김화순의 아래 논문(2024)에 나오는 한영실과 동일한 인물이다. 그렇지만 김화순 논문과 동일한 자료가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사업으로 만든 새로운 구술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스피노자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김화순(2024),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닫힌 세계 속 부유(浮遊)하는 북한 공장노동자들의 목소리」, 『현대북한연구』 27(1).

차문석에 의하면, 북한에서 ‘일공(日工)’이란 시장적인 방식으로 유동하면서 일자리를 찾아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일공은 국영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이기도 하며, 가족 생계를 위해 농촌을 떠난 농민이기도 하다. 일공은 이미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 주민의 20%에 육박한다는 보고가 있다. 차문석(2020), 「북한의 신노동자, 일공과 혼종성」, 『북한

의 돈을 내고 도(道) 산하 피복공장에 입직시켰다. 피복공장은 가동이 멈춘 다른 공장들과 달리 쌀 배급을 주었기에 뇌물을 내고 입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실은 3년 내내 무결근, 생산량 300% 달성, 1년 362일 하루 16시간, 영실은 준마처녀가 되었다. 그러나 3년째 포상을 받은 자리에서 선물을 열고 충격을 받았다. 들어 있던 옷감은 어디에도 입고 나갈 수 없는 촌스러운 형광색 옷감이었다. ‘꽂지 없는 소재끼’처럼 부려 먹은 대가가 겨우 이 건가?

이 순간의 충격은 영실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영실의 362일은 부적합한 기쁨에 의해 추동된 코나투스의 과잉 발현이었다. 공장 속보판에 이름이 올라가고 ‘아무개 양처럼 일하라’는 칭찬을 받는 기쁨으로 일했다. 그 기쁨을 설계한 것도 국가이며 362일간의 영실의 노동을 가져간 것도 국가이다. 이 사실은 슬픔만이 예측이 아니라 기쁨도 예측으로 이끈다는 교훈을 준다. 준마처녀라는 영예 자체가, 영실의 코나투스를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시키는 장치였던 것이다. 영실은 형광색 옷감을 계기로 예측된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다. 그러나, 영실은 피할 수도 갈 곳도 없었다. 수년 후인 2008년, 영실에게는 기회가 왔다. 신의주에 정권기관 산하의 신흥 피복공장들이 급증하면서 비로소 길이 열린 것이다. 이 공장들은 기존 공장의 기능공을 유치하기 위해 하루 10위안씩 현금으로 매일 공임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자기네 공장으로 고급기능공들을 유치했다. 20일 일하면 200위안을 받는데, 이는 쌀 60킬로그램을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다. 동네 언니들과 함께 영실은 공장의 눈을 피해 신 공장으로 면접을 보러 다녔다. 그러나 이 이동에는 구조적 제약이 따랐다. 북한에서 노동자는 적(籍)으로 소속 단위에 결박되어 있으며, 다른 공장으로 이동하더라도 원래 공장이 이동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한 정식 노동자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 마치 노비문서처럼 국가가 배치한 원공장에 매인 몸이었다.

학연구』 16(1).

기능공이라고 본 공장에서 절~~대 서류를 안 떼주거든요. 저희 같은 기능공을 1명씩 키우려면 4년, 5년씩 걸리는데 우리 공장에서 다 키워냈는데 다른 공장에 절대 못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실은 원공장이 아닌 다른 세계를 가보고 싶었다. 영실은 반문한다. “그러면 공장에서 더 잘해주든가. 자기네 그렇게 못 해준대요.” 소속 공장은 기능공을 놓아주지 않으면서도 16시간 노동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적(籍)의 본질은 이 비대칭성에 있다. 영실은 새 공장에서 번 돈의 절반을 원공장의 노동과장에게 상납해야 했다. 영실의 말이다.

돈을 100원을 벌었다면 50원을 주고, 300원을 벌었다면 100원~150원 정도를 매월 꼬박꼬박 노동과장한테 상납해야 돼요.

노동과장은 다시 지배인과 당비서에게 읍소하며 뒷돈을 챙긴다.

제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아이들 잡으러 다니는데, 조금 좀 시간 연장 좀 해주십시오.

상납금은 연쇄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착취 구조이다. 국가가 영실을 적으로 묶어두고, 그 속박을 이용하여 영실의 노동 산출물을 추출한다. 2010년대는 70~80년대 국가의 코나투스과 인민의 코나투스가 유사한 형태로나마 일치했던 그 시절이 아니다. 국가와 권력을 대리하는 간부들은 인민이 있는 힘을 다해 짜내는 노동을 노골적으로 착취하고 의존한다. 인민이 바깥에서 벌어오는 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2000년대 이후 북한권력은 공포에 의한 지배를 넘어, 인민의 자발적 경제활동 자체에 추출적으로 의존(extractive dependence)하고 기생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³³ 이는 국가의 코나

투스가 인민의 코나투스를 직접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코나투스가 산출한 결과물을 약탈적으로 전유한다. 공포에 의한 억압³⁴이 코나투스의 축소를 초래한다면, 추출적 의존은 코나투스의 방향 상실, 즉 방향을 초래한다. 영실과 떠돌이 일공들의 코나투스는 이러한 추출적 의존 구조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한다. 인민을 착취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국가는 더욱 취약해진다. 왜 그러한가? 인민역량의 총합으로서의 국가, 그 국가를 지탱할 인민의 실질적 역량(potentia)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쇄당하기 때문이다. 원공장은 공장을 나간 노동자들에게 상납금을 받고 약 2~3개월, 길어야 6개월의 말미만 준다. 원공장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을 노동단련대로 보낸다. 영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왔다 갔다 순환을 반복했다.

공장에서 또 안 보이른 ‘어 또 갔다가 인제 또 몇 달이면 또 기어 들어오겠네.’ 몇 달 있다가 또 들어가면 ‘어 또 왔네, 또 왔어?’

새로운 공장에서의 노동조건은 원공장보다 참혹했다. 하루 2시간 수면, 기숙사 없이 현장 바닥에서 잠, 휴일 없음. 공장 측은 일공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왔으니 옷 100매를 만들어 매탁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는 인식이었다. 영실과 동료들은 3~4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일을 하다가 겨우 집에 들어간다. 여공들이 버스를 타면 운전기사 말한다. “좀 씻고 다녀라. 냄새 난다, 야!” 영실은 지지 않고 대꾸한다. “씻을 데가 어디 있어, 씻어요?”

영실과 동료 일공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물 위에 뜬 깨알’이라고 불렀

33 본 연구에서 ‘추출적 의존’이란 국가가 인민의 자발적 경제활동에 의존하면서도 그 산출물을 상납, 수수료, 지대 등의 형태로 일방적으로 추출하는 비대칭적 관계를 가리킨다. 북한 현지어로 ‘빨대를 쏴는다’라고 표현되는 현상의 성격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다.

34 스피노자(2020), 공진성 역, 『정치론』, 서울: 도서출판 길, pp. 133-144. 스피노자는 『정치론』 5장에서 국가와 신민, 공포와 역량의 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국가의 역능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를 구성하는 인민들의 역능의 합이다.

다. 뚱뚱 떠내려가다가 탁 부딪치면 방향을 바꾸어 다시 떠내려간다. 어느 피복공장이 더 잘해 준다는 소문이 돌면 그쪽으로 가고, 본 공장에서 단련대 보내겠다고 겁을 주면 다시 돌아간다. 이 비유 안에 구조 전체가 들어 있다. 깨알은 방향 감각이 있다. 어딘가에 안착하고 싶다. 그러나 물의 흐름이 깨알을 계속 떠밀고, 부딪치게 하고, 다른 곳으로 보낸다. 코나투스 는 있되, 방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녀들의 코나투스는 신철처럼 축소되지는 않았으나 계속 방황하며 비틀거린다.

4.2. 성상납의 거부: 자유로운 인간의 대가

떠돌이 일공을 단속하는 비사그룹빠가 온 신의주 바닥에 깔린다. 영실은 700(세대주, 하루 700그램 배급 대상자)이었기에 특히, 잡히면 복잡해졌다. 어느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단속반이 들이닥쳐 영실이 잡혀갔다. 비사그룹빠 책임자는 영실을 유혹한다. 필자가 만난 키가 훤칠한 영실은 눈이 크고 코가 오뚱한 서구적 미인이다. “책임자라는 아새끼가 저보고 ‘인물이 번번하게 생겨가지고 이 머저리처럼 산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개수작을 떨더라고요.” 자기는 권력이 있으니 떠돌이 생활을 안 시키고 편하게 살게 해줄 수 있다고. 영실은 단번에 거절했다.

저는 난 무조건 나의 배우자를 잘 만나서 내 팔자를 고칠려고 애를 쓰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단호하게 단칼에 찔라 버렸죠.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의 노력이다. 성상납 역시 자기 보존에 유리한 경로일 것이다. 권력자에게 몸을 내주면 떠돌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속(籍)의 문제도 해결된다. 체제가 여성에게 제공하는 출구는 두 개뿐이다. 결혼 아니면 성상납. 그런데 결혼은 남편과 아이와 시집이 영실의 등짝 위

에 올라타는 것이고, 성상납은 “끝까지 책임을 안 지고 중간에 또 탁 버리고 또 다른 상대가 나타나면 또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영실은 주변에서 수없이 보았다. 영실의 거부는 코나투스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은 코나투스’의 발현이다. 성상납을 받아들이면 교사 어머니에게서 받은 도덕적 교양이 구성하는 ‘나’는 파괴된다. 영실은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³⁵ 그러나 이 자유의 대가는 욕설로 돌아왔다. 영실에게 친하게 지내자던 비사그룹 뼈 단속책임자는 영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욕설을 퍼붓는다.

대가리가 돌대가리라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니 등뼈를 깎아서 살라’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요행으로 영실이 일했던 신흥 피복공장에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성상납 없이 영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영실은 더 이상 떠돌이 일공생활에서는 자신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자각한다. 결혼한 일공 언니들이 아이를 낳고도 공장을 떠나지 못하고 이 공장 저 공장을 떠돌아다니는 모습이 바로 영실의 미래였다. 공장에는 밤늦게 어머니의 공장으로 찾아와 먼지 바닥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 “엄마, 엄마” 하면 “아, 엄마 시간 없어. 저기 앉아서 놀라.” 먼지 가득한 현장에서 아이가 쪼그리고 잠든다. 공장 언니 한 명은 아이를 낳고 밤을 밝히며 일하다가 척추결핵에 걸려 죽었다. 그 언니는 죽기 직전까지 가족의 쌀을 위해 공장에 나와 일했다. 영실이 곳곳이 독신의 삶을 이어간 이유는 이 언니들과 같은 미래를 밟지 않기 위해서였다.

35 스피노자, 『에티카』 4부 정리72, “자유인은 결코 기만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항상 신의에 따라 행동한다.”

4.3. 장마당의 벽: 무능이 되어버린 순수

영실이 공장을 떠날 결심을 한 것은 서른 살이 되어서이다. 원공장과 신공장을 왔다갔다 하는 떠돌이 일공생활의 방향을 마치고 이제 완전히 생업형노동자(subsistence workers)로서 시장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소속을 바꾸는 데 100~300달러가 필요했고, 한꺼번에 낼 수 없어 찢끔찢끔 갚았다. 적을 떼고 나자 여맹에 소속되었는데, 이번에는 여맹위원장이 매월 300위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남편이 있는 400g(부양) 여성들은 훨씬 적게 내는데, 영실은 아버지도 남편도 없는 700g(세대주)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능에 대한 착취 위에 다시 성별과 가부장적 국가가 만들어낸 착취가 더 보태진 것이다. 남성 보호자가 없는 여성은 더 비싼 값을 치러야 보호받을 수 있다. 결혼하면 400이 되어 부담이 줄어들지만 영실은 노동자 남성과 결혼할 생각은 없어 꼭 참고 월 300위안이라는 할증이 부과되는 상납금을 감수한다. 그러다가 친구 소개로 핸드폰 장사를 시작했다. 오랜만에 찾아간 친구는 영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발전을 해 있는 거예요, 친구가. 저는 쌀을 타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치며 일하는데 개는 장사를 해 가지고 진짜 집도 좋은 집에서 살구, 결혼도 하고.” 영실은 후회한다. ‘아, 내가 재네도 그렇게 발전하도록 나는 내 뼈 깎는 일을 했구나! 정말 머저리처럼 살았구나.’

영실은 장마당에 서서 핸드폰을 팔았다. 돈주처럼 집에 앉아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서서 핸드폰을 사겠다는 사람을 친구에게 데려간다. 한 건당 10위안을 받았다. 그런데 단속하는 그룹빠가 있었다. “잡혀요. 그루빠한테 잡히면 ‘이놈의 간나, 니가 어디서 사는 간나가 또 나타났어?’ 간나라는 소리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맨날 공장에서 욕먹던 욕은 욕도 아니더라구요.” 영실은 공장에서는 온갖 욕을 먹었지만, ‘간나’라는 욕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장마당에서는 넘지 못할 선이 없었다. 보안원에게 불려가서 “먹고 살라고 발버둥질하는 나보고 왜 간나라고 하냐”고 따졌다가 뺨을

맞았다. 영실은 엉엉 울면서 집까지 걸어왔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 “장사 하겠으면 성깔부터 죽이라.” 영실에게 도덕적 코나투스를 심어준 어머니, 교사였던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코나투스를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친구는 고지식한 영실에게 단속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 익혀서 포섭하고 뇌물을 주는 요령을 가르쳐주었다. 순찰대, 보위지도원, 보안원, 여맹위원장에게 다 웃으면서 대해야 한다고. 욕을 먹더라도, 웃으면서 웃으면서 욕을 먹으라고.

공장에서 욕할 때는 그냥 머리 숙이고 욕만 먹으면 되는데 이젠 또 같이 웃으면서.

영실은 자신의 삶이 너무도 기가 막혔다. ‘똑똑이 장사’도 해보았다. 잘 사는 집을 다니며 문을 똑똑 두드리며 물건을 파는 일이었다. 친구가 배낭에 한국 제품을 가득 채워주고 주소를 대주었다. “갔는데 진짜 그때 심정은, ‘내가 내 능력으로 상품 한 개라도 팔 수 있을까?’ 집이 진짜 현란해요. 알아야 되겠는지 서 있어야 되겠는지 진짜 뽕까오리처럼 꾸벅꾸벅 해 가지고.”

부잣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부잣집 여자에게 한 가지도 못 팔고 돌아왔다. 공장에서 15년간 앉아서 재봉질만 하던 영실이 이런 장사판에 적응할 수 없었다.

장마당에 나가서 적응을 못해요. 물건을 팔려면 말도 잘하고 사람 눈빛을 보고 흘리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진짜 순수하고 고지식하거든요.

사람을 홀려야 한다. 그런데, 순수하고 고지식하기만 하다. 공장에서 뿔속까지 스며든 순수함은 시장에서는 무능력이 되었다. 공장의 코나투스로 길들여진 몸이 시장의 코나투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장으로 갔다가, 장마당으로 나왔다가, 다시 공장으로 갔다. 오다가다 떠도는 깨알의 궤

적은 끝이 없었다. 핸드폰 장사를 하기 위해 바쳐야 하는 돈이 너무 많았다. 여맹위원장에게 월 300위안, 그 외에도 순찰대, 보위지도원, 보안원에게 뇌물을 주어야 했다. 나는 영실에게 차라리 왜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물어보았다.

공장에 가고 싶는데 쪽팔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나이도 먹은 데다가 아직까지도 자리 못 잡고 떠돌아다닌다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또 친구는 막 준비실장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가서 개가 짹짹대는 지시를 받고 일한다는 게 사람이 못 하겠더라고요.

손끝이 날랜 일급기능공인 영실은 원공장에 돌아가면 언제라도 환영받는 존재이다. 공장 간부는 쌀 20kg을 주면서 ‘사람질을 해라’고 영실에게 말한다. 영실은 공장을 며칠 다니다가 다시 공장문을 나서서 장마당으로 갔다. 그 후 2년간 이를 악물고 버티었다. 그러면서 영실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명절날 같은 때,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팀끼리 돈 모아가지고 어디 압록강에 놀러도 가고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했어요.” 장마당은 공장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여가와 자유가 있었다.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받으면서 핸드폰도 내 손으로 팔아도 보고 하면서 영실은 조금 장사에 재미를 붙이고 살기 시작하였다.

영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거부이다. 체제가 여성에게 제공하는 두 개의 출구, 결혼과 성상납을 모두 거부하고, 등뼈를 꺾으며 자기 힘으로 버티었던 그 꺾이지 않는 정신. 월 300위안의 상납금을 내면서 ‘간나’라는 욕을 들으며 살았지만, 성상납도 결혼도 하지 않고, 영실은 자기 존재의 코나투스(존재의 힘)를 지켰다. 영실이야말로 스피노자가 말한 자유로운 인간의 정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 한국에 온 영실은 지금도 가끔 공장의 동료들을 생각하며 슬퍼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쌀을 위해 362일 하루 16시간씩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친구들을.

5. 남은 자들의 투쟁: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코나투스

제3장과 제4장에서 우리는 직분형 노동자들이 생업형 노동자들로 바뀌면서 기업소를 떠나가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떠나는 것은 아니다. 떠나는 자들이 있으면 남는 자들이 있다. 먹을 알이 있는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기업소의 통치권을 쥔 간부들, 그리고 그 간부들을 보좌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얻는 핵심 노동자들이 남는 자들이다. 남는 자들이란 직업형 노동자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직위로 먹고사는 지위지대형 노동주체(positional rent workers)이다. 5장에서는 떠나는 자들이 빠져나간 뒤, 남은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추적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즐긴다고 우리가 상상하면, 우리는 그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³⁶ 먹을 알이 많은 기업소일수록, 이 정리가 정확하게 작동한다. 당비서와 지배인은 같은 것을 원한다. 기업소의 통치권, 그리고 그 통치권에서 나오는 먹을 알. 그래서 그들은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개인의 성품 문제가 아니라, 결핍사회가 낳은 코나투스의 충돌이다. 그리고 파편에 맞은 사람은 다치게 된다.

5.1. 권력투쟁의 서막: 기업소의 아침 소동

은철(가명, 1980년대 후반생)은 해산 사람이다. 복잡한 군중에 속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도 운전수였고, 자신도 대를 이어 운전수가 되었다. 량강도 특유의 말투로 자신이 겪은 일을 마치 보이는 듯하게 묘사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북한에서 운전수, 특히 기업소의 간부차 운전수는

36 스피노자, 『에티카』, 3부 정리32. 이 정리는 인간이 타인의 배타적 소유물에 대해 질투와 경쟁의 정서를 갖게 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먹을 알이 있는 자리를 둘러싼 간부들의 권력투쟁은 이 정리의 정치적 발현이다.

‘먹을 알 있는 자리’에 속한다. 모든 물자가 결핍된 사회에서 운송수단이라는 자산을 직접 운용하면서 생기는 부수입이 이 직업의 매력이다. 배급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다른 종류의 대가가 따른다. 운전수는 간부들의 비밀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당비서가 누구를 만났는지, 지배인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운전수는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소의 권력들이 충돌할 때, 운전수는 충돌의 한복판에 서있다. 운전기술만으로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 권력의 흐름을 읽는 센스,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리는 능력, 충돌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몸을 지킬 정도의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먹을 알이 많은 기업소일수록 간부들 간의 권력 충돌은 더욱 격화되며, 운전수의 처신은 더 어려워진다. 은철이 이러한 깨달음을 온몸으로 얻은 장소는 혜산의 한 기업소에서였다.

은철은 기업소의 지배인 운전수로 일 년 남짓 일하고 있었다. 사업소는 3급 기업소에도 속하지 못하는 작은 곳이었지만, 시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소였다. 어느 날 아침, 지배인이 9시에 도당 회의를 가야 하니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은철은 9시 10분 전에 기업소 마당에 차를 대고 기다렸다. 그때 한 달 전에 새로 온 당비서가 나왔다. “야! 나 강철공장 비서를 만나러 가야 돼. 가자!” 은철은 무턱대고 갈 수 없었다. 이 차는 당비서 차가 아니었고, 은철은 지배인의 연줄로 들어온 사람이었다. 지배인이 은철을 데려올 때 이렇게 말했었다. “내가 너를 꼭 데리고 일할 거니까, 내하고 한번 같이 일해보자. 너를 꼭 책임질게.” 은철은 당비서에게 지배인이 도당 회의를 가야 해서 차를 대기하고 있는 참이라고 대답했다.

야! 당 위원장이 가자면 가는 거지. 왜 거기다 토를 달아!

당비서가 눈을 부라렸다. 은철은 억울했다. 그러나 당비서는 말없이 사무실로 들어가버렸다. 9시에 출발하기로 한 지배인은 나오지 않았다. 15분이 지나서야 나타난 지배인은 쓴웃음만 지으며 은철에게 그냥 당위원장하

고 갔다 오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다려도 당비서가 나오지 않았다. 아침의 작은 소동은 그렇게 지나가버린 듯했다. 그러나 지나간 게 아니라 시작이었다.

5.2. 틀고 앉아 말(馬)을 쏜다!

새로 온 당비서는 원래 도당 공장지도과장이었다. 시내 20여 개 공장의 비리를 파헤치며 검열을 붙이는, 권력 있는 자리였다. 간부들과 다투면 의자까지 날아갔다. 그런 그가 왜 이 작은 사업소로 왔는가. 휴가 중에 술을 먹고 중앙당 간부의 전화를 무례하게 받는 실수를 했다.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것이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화’이다.

당비서는 처음에 호언장담했다. 2년 안에 다시 도당으로 간다고. 그의 코나투스(코나투스)는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그 방향이 바뀌었다. 이 작은 여객사업소가 얼마나 수입이 좋은 곳 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사업소는 하루에 북한 돈으로 1억이 들어왔다. 게다가 소비 단위이다 보니 중간에 돈을 빼돌려도 증거도 남지 않았다. 기름을 사서 소비했다 하면 끝이다. 소비한 기름을 어디 가서 확인할 것인가? 천 원에 구입한 것을 1만 원에 구입했다고 장부에 쓰면 끝나는 것이었다. 도당 간부였을 때는 검열을 하면서 뇌물을 조금 받는 데 불과했는데, 여기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자리였다.

추락한 자의 코나투스가 방향을 틀었다. 도당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이 작은 사업소에 ‘틀고 앉기’로 결심하였다. 틀고 앉으려면 25년째 이곳을 지켜온 지배인을 반드시 제거해야 했다. 스피노자가 말한 대로, 같은 것을 둘이 가질 수 없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적이 된다.³⁷ 당비서의 코나투스와 지배인의 코나투스가 같은 먹을 알을 향해 있는 한, 하나가 다른 하나를 파괴

37 스피노자, 『에티카』, 3부 정리32.

하러 하는 것은 구조적 필연이었다.

당비서는 지배인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먼저 지배인의 ‘말’을 쏘았다. 장기에서 상대방의 차(車)를 잡기 전에 말을 떨어뜨리듯이. 며칠 후, 은철이 차장 처녀 둘을 태워주었다가 당비서에게 걸렸다. “야! 니가 뭘테 처녀들을 마음대로 태워!” 3일 후에는 지배인의 명을 받아 연유 창고장을 태웠다가 또 걸렸다. “야 너 이 새끼야! 여자를 태우지 말라고 했지! 키 내놔!” 지배인이 시킨 일이었다. 그러나 은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당비서가 지배인을 잡으려는 상황에서 지배인이 시켰다고 말하면 빌미를 쥐여주는 꼴이었다.

은철은 일주일간 혁명화 처벌을 받았다. 공장 안에서 하루종일 곡괭이 질과 삽질을 했다. 억울했지만 감수했다. 이 광경을 목도한 기업소 종업원들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느꼈다. ‘이 당비서는 지배인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지배인을 막으려고 하는 거구나.’

당비서가 은철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지배인을 잡으려 했다. 은철은 그 공포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밀려나면 어떡하지.’ 이 공포가 은철의 코나투스(코나투스)를 변용시켰다.

5.3. 거짓말을 배우는 코나투스

열흘 만에 당비서와 지배인 사이에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은철은 알 수 없었다. 당비서가 은철에게 차 키를 돌려주면서 경고했다. “야 너 조심해. 나 두 번의 기회는 없어!”

그 후 은철은 지배인의 행적을 당비서에게 노출하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다. 먼저 지배인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지배인 동지, 차를 쓰실 일이 있으면 최소한 두 시간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배인이 미리 알려주면, 은철은 먼저 당비서에게 갔다.

“저, 차가 불량한데 공장 안에서 수리가 안 됩니다. 동네에 수리하는 사

람이 있는데, 다녀오려면 한 네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핑계를 대고 허락을 받아 빠져나간 뒤, 지배인을 태우고 움직였다. 당비서의 눈을 피해 지배인의 종적을 감추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은철의 타락인가? 코나투스는 자기 보존의 힘이지만, 그 힘이 발휘되는 방식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배급이 있고 기업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절이라면, 은철의 코나투스는 정직하게 일하는 것으로 발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먹을 알을 둘러싼 권력투쟁의 한복판에서, 은철의 코나투스는 거짓말을 배우는 것으로 변용되었다. 역량이 감소하는 느낌, 자신이 자신답지 못하다는 느낌. 스피노자가 말하는 슬픔의 정서가 은철의 일상을 채웠다. 매번 차를 수리해야 한다는 핑계도 한계가 있었다. 한 달간 이렇게 일해보니 너무 힘이 들었다. 은철은 생각했다. ‘내가 이 당위원장에게 언젠간 쫓겨나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당비서 비위 하나 못 맞춰서 자리 뺏겼다고 하겠지.’ 결국 은철은 당비서를 찾아가 아파서 힘드니 차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 알았어. 키 줘!” 그 순간 은철은 온몸으로 느꼈다. ‘아, 당신은 내가 빨리 나가기를 기다렸구나.’ 코나투스가 꺾이는 순간이었다.

5.4. 어항은 깨지지 않는다: 지배인 해임작전 이후 달라진 것

은철이 기업소를 떠난 뒤, 당비서는 은철보다 세 살 어린 운전수를 들였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차 수리는 전혀 할 줄 모르는 청년이었다. 그러나 이 운전수가 지배인을 해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운전수는 지배인과 항상 같이 다닌다. 지배인의 행동반경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당비서에 넘어갔다.

당비서는 석 달간 온 힘을 기울여 지배인의 비리를 쫓다. 보조성원인 창고장과 부기원을 살살이 조사하고, 전 종업원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지배인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다. 도당에서 산하 공장들을 검열하던 숨씨를 이

작은 여객사업소에 발취한 것이다. 도당은 물론 중앙당에도 인맥이 있었다. 지배인은 인맥의 힘에서 당비서를 따를 수 없었다.

해임 일주일 전, 검찰소에서 은철을 찾아왔다. 은철이 운전하면서 구입했다고 적힌 차 부속 명세서를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다. 서른 가지 부속 중 열 개는 은철이 산 게 맞았지만, 열 개는 사지 않은 부속이었다. 지배인과 부기가 장부를 꾸미고 그 돈을 나눠 먹은 것이다. 은철은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 지배인을 잡는 데 동참하는 꼴이었다. 은철은 천연덕스럽게 능청을 떨었다.

네 맞습니다. 100프로 맞고요. 여기에 부속을 더 사들인 게 있는데 안 적혀 있네요.

은철이 지배인을 지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한 보람도 없이 지배인은 결국 해임되었다. 45년간 부기를 해온 사람도 함께 해임되었다. 당비서는 후임 지배인으로 '부처'라고 불리는 운수과장을 앉혔다. 당비서가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하면 왼쪽으로 가는 좃대 없는 사람이었다. 이후 사업소 지배인은 노동자들을 데리고 동원노동만 다녔다는 소문이다. 도로 닦기, 김매기, 부엽지 채소 나르기. 지배인이 온 해산에 동원노동에 다니는 동안 기업소의 모든 행정은 당비서에 의해 장악되었다.

물론 당비서에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공장 안에 식당을 꾸려 종업원들에게 점심을 먹였다. 해산시 최초로 양어장을 만들어 메기를 키웠고, 수명이 다 된 컨베이어 벨트의 고무판을 구해 버스 바닥에 깔아 겨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했다. 당비서는 개인의 주머니에 돈은 돈대로 넣으면서, 동시에 종업원들의 생활도 개선했다.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자의 여유였다. 그러나 이 여유 아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있다. 지배인, 운전수 은철, 부기. 여객사업소에서 쌀 10킬로라도 배급받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 은철도 생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기업소에서 스스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업소에서 벌어진 일은 북한에서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북한 전역에 당비서와 지배인이 싸우지 않는 공장이란 없다. 먹을 알이 많을수록 그 싸움은 격렬해진다. 위를 향해야 할 분노가 옆으로 향한다. 체제를 향해야 할 저항이 동료로 향한다. 당비서가 지배인을 잡아먹고, 지배인이 밀려나고, 운전수가 밀려난다. 서로를 잡아먹는 코나투스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어항은 깨지지 않는다.

5.5. 소결: 생존불안사회에서 이성의 인도는 가능한가?

은철이 기업소 내 권력투쟁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있다. “어느 한쪽 편에 서지 마라. 싸움에 끼어들지 마라. 정보를 쥐야 할 때는 주되, 결정적 정보는 넘기지 마라. 대세에 상관없는 소소한 정보만 흘려라. 그리고 혼자 살아남아라.” 은철은 이것이 운전수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연대하지 말라는 지혜이고, 편들지 말라는 지혜이다. 이 지혜가 확산될수록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고립된 사람들은 더 쉽게 서로를 밀어낸다. 그리고 체제는 더 안전해진다. 어항은 깨지지 않는다. 이것이 적응하는 코나투스의 실체이다. 신철의 코나투스가 축소되어 삼 세 번의 최소 존재 보존으로 수렴했다면, 영실의 코나투스는 방향을 잃고 공장과 시장 사이를 떠돌았다. 은철의 코나투스는 축소되지도, 방황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권력의 틈새를 읽고, 정보를 분별하고, 거짓말을 배우는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했다. 외견상 가장 역동적인 코나투스이되, 그 역동성의 대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배우는 것, 이것이 적응의 비용이다.

스피노자는 “이성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한에서만 사람들은 항상 필연적으로 본성상 합치한다”고³⁹ 말한다. 그렇지만, 생존불안사회에서 이성의 인도는 어떻게 가능한가. 코나투스가 서로를 잡아먹는 방향이 아니라, 서로

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³⁹ 그 구체적인 양태의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축소된 코나투스도, 방황하는 코나투스도, 적응하는 코나투스도 — 각각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고유한 양태이며, 이성의 인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는 실패가 아니라 조건의 결과이다. 은철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새벽부터 배송 일을 한다. 북한에서 권력의 틈새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던 그 청년은 여기서도 살아남기 위해 뛰고 있다. 그의 어깨뼈가 북한에 있던 시절보다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더 도드라졌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역설이다. 마른 몸은 금방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롭다.

6. 결론: 코나투스의 다양한 양태와 작은 생명들의 투쟁

이 연구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노동세계의 변동을 존재론적 층위에서 조명하여 기존의 시장화 연구와 일상연구가 포착하지 못한 측면들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 연구의 첫 번째 학술적 기여는 ‘직-업 분리’(jik-eop disjunction)라는

38 스피노자, 『에티카』, 4부 정리35.

39 스피노자는 이성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한에서만 사람들이 본성상 합치한다고 말한다(에티카 4부 정리35). 그러나 이성의 인도는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개별 신체의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국가란 개별 코나투스들이 결합하여 형성한 공통 역량이며, 그 공통 역량이 각 개인의 신체 보존을 보장할 때 이성의 인도를 위한 조건이 마련된다. 그러나 북한의 반생명정치는 이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동한다. 국가가 인민의 코나투스를 추출할수록 공통 역량은 줄어들고, 공통 역량이 줄어들수록 국가는 더 강하게 추출하는 자기파괴적 악순환에 놓인다. 이 구조 아래에서 이성의 인도는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그럼에도 코나투스는 소멸하지 않는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의 본성은 “가장 높은 정도의 완전성에서부터 가장 낮은 정도의 완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체들을 창조할 수 있을 만큼” 광대하다(『에티카』 1부 부록, 진태원 역, p. 38).

개념의 제시이다. 본 논문은 이 현상을 정치학의 통치 기술로도 아니고 경제학의 이중 착취로도 아닌, 인민의 존재론적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직업이란 본래 일을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지만, 북한에서 직(職)과 업(業)은 분리되었다. ‘직-업 분리’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노동 세계에 형성된 분열된 이중 노동 구조를 가리킨다. 직(職), 즉 공식 직장은 정치적 생명을 담보로 노동을 강제한다. 업(業), 즉 비공식 생업은 육체적 생명을 담보로 노동을 강제한다. 두 노동이 한 사람의 신체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면서 노동을 분열시키고 생명을 분열시킨다. 이러한 직분과 생업의 분리가 직업형 관리자, 직분형 노동자, 생업형 노동자라는 주체의 분화와 양태의 발현으로 이어졌음을 인구센서스 데이터, 배급 통계, 그리고 세 인물의 구술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 시장화 논쟁이 체제 수준에서의 전환 여부에 주목해 왔다면, 본 연구는 개별 노동 주체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분열되었는가를 추적함으로써 30여 년 시장화가 인간에게 어떤 존재론적 귀결을 가져왔는지 드러내었다.

둘째, ‘지위적 지대’(positional rents)라는 개념을 통해 고난의 행군 이후 새롭게 재편된 직업 위계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먹을 알이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의 분화, 그리고 ‘먹을 알’을 둘러싼 간부들의 권력투쟁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국가가 인민의 자기보존 운동에 의존하는 구조로부터 파생된 행위자들의 미시적 발현이다.

셋째, 직분, 생업, 직업 영역을 표상하는 세 구술자의 삶을 통해 코나투스스의 축소·방황·적응이라는 다양한 양태를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가 북한 주민을 ‘저항 아니면 순응’이라는 이분법으로 파악하는 데 반해, 이 연구는 동일한 구조 아래에서도 코나투스스가 다양한 양태로 발현되고 변용됨을 보여준다. 축소는 저항의 실패가 아니며, 적응은 순응이 아니며, 방황은 무능력이 아니다. 각각의 양태들은 반(反)생명정치 아래에서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코나투스스의 고유한 전략이자 주체의 생명력의 발현이다.

넷째, 본 연구는 코나투스 개념을 북한 체제 분석에 적용하는 데 그치

지 않고, 기쁨의 예측이라는 현상을 통해 스피노자 개념 자체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362일 무급노동을 기꺼이 수행하면서 목표량을 넘쳐나게 수행하는 준마치녀의 영예는 국가가 설계한 기쁨이면서 동시에 인민의 코나투스를 착취의 방향으로 작동시키는 기제이다. 슬픔만이 예측이 아니라 기쁨도 예측이 될 수 있다. 이는 북한 체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구조의 차원에서 정서의 차원으로 확장한다. 동시에, 이러한 기쁨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본 연구가 앞으로도 붙들고 갈 철학적 과제이다.

북한 노동자들의 구슬생애사를 쓰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가장 깊이 조응한 사람은 영실이였다. 일공 영실이 ‘물 위에 뜬 깨알’이라고 스스로의 존재에 이름을 붙였을 때 필자의 코나투스도 구슬자의 코나투스와 공명하였다. 불안정한 노동조건에서 몸을 깎아 일하면서도 안정된 정착지점 없이 부유하는 일공 노동자 한영실의 모습은 이 땅의 수많은 연구프레카리아트와 다를 바 없다. 필자가 영실의 정서에 감응하고 기우는 것은 이 연구의 한계가 아니라 질적 연구의 존재론적 조건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 연구의 존재론적 전환을 제안하였다. 북한이 얼마나 변했는가라는 질문을 거두고 전환과정에서 살아가는 몸의 양태들을 추적함으로써 작은 생명들의 멈추지 않는 투쟁을 드러낸다. 작은 생명들은 축소되고, 방황하고, 적응하면서도, 자기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코나투스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수많은 영실들이 자신의 ‘등뼈를 꺾으면서도’ 자기의 코나투스를 지킨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자료

국사편찬위원회·은철(가명), 『1980~2010년대 공장구성원의 직업생애에 투영된 북한 공

장의 역사』(OH_25_006)(2025년 6월 3일 면담).
 2025년도 국사편찬위원회·이기술(가명), 『1980~2010년대 공장구성원들의 직업생애에
 투영된 북한 공장의 역사』(2025년 6월 29일).
 국사편찬위원회·한영실(가명), 『1980~2010년대 공장구성원의 직업생애에 투영된 북한
 공장의 역사』(OH_24_006)(2024년 6월 21~22일 면담).
 선한승(1994), 『북한주민의 직장생활과 노동』, 서울: 공보처.

김정일(1986),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
 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86년 7월 15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2021),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2021년 9월 개정), 국가
 정보원 편, 『북한법령집 5』(2022) 재인용.
 중앙통계국(20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8년 인구일제조사 보고서』, 평양:
 중앙통계국.

UNFPA (2009),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al Report on the Enumeration of
 the 2008 Population Census*, Bangkok: UNFPA.

논저

국토통일원(1971) 『북한의 생활실태』, 서울: 국토통일원.
 김병연·양문수(2012),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병로(2000),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9(1),
 pp. 219~242.
 김태진(2018), 「신체정치의 계보에서 보는 북한의 통치담론: 생명, 국가 그리고 정치적
 인 것」, 『국제정치논총』 58(2), pp. 37~72.
 김화순·최봉대(2022), 「1980년대 북한 정치신분제에서 세대 간 지위세습과 성취기제」,
 『현대북한연구』 25(3), pp. 74~115.
 김화순(2024),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닫힌 세계 속 부유(浮遊)하는 북한 공장노
 동자들의 목소리」, 『현대북한연구』 27(1), pp. 207~257.
 김화순(미간행), 「8.3노동의 기원: 1970~1990년대 북한 인민의 직업생활」, pp. 12~21.
 박영자(2005), 「북한의 생체정치(bio-politics): 신체 통제와 규율화를 중심으로」, 『현대
 북한연구』 7(3), pp. 97~149.
 박영자·조정아·홍제환·현인에·김보근(2016),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서
 울: 통일연구원.
 박형중(2011),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
 구』 20(1), pp. 213~237.
 박형중(2012),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6(5), pp. 207~
 224.

- 박형중(2023), 「김정은시대 북한주민의 직장생활」, 통일연구원 위크샵 발표논문(2023년 5월 25일).
- 박형중·정은미·김화순(2023), 『북한주민의 직장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0), 『북한 사회변동 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선한승 외(2000) 『남북협력과 노동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스피노자, 바루흐(2022), 진태원 옮김, 『에티카』, (미간행).
- 스피노자, 바루흐(2020), 공진성 옮김, 『정치론』, 서울: 도서출판 길.
- 양문수(2010),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파주: 한울아카데미.
- 조정아(2005), 「북한의 작업장 문화: 순응과 저항의 스펙트럼」, 『통일정책연구』 14(2), pp. 309-337.
- 진태원(2016), 「정동인가 정서인가?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초보적 논의」, 『현대사학』 563호, pp. 37-48.
- 차문석(2020), 「북한의 신노동자, 일공과 혼종성」, 『북한학연구』 16(1), pp. 159-190.
- 통일부(2024),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서울: 통일부.
- 한재현·고유환(2020), 「북한사회인식의 습속과 혼종성이라는 문제설정」, 『북한학연구』 16(1), pp. 113-157.
- Tanzi, Vito (1998), "Corruption Around the World," *IMF Staff Papers* 45(4), pp. 559-594.
- Kim, B.-Y., & Kim, M. J. (2016). The evolution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Seoul Journal of Economics*, 29(4), 457-480.

원고 접수일: 2026년 4월 12일, 심사완료일: 2026년 5월 11일, 게재 확정일: 2026년 5월 11일

ABSTRACT

Fragmented Labor

Kim, Whasoon*

The Struggles of Small Lives after the
Disjunction between *Jik* (職) and *Eop* (業)

This study examines how the disjunction between *jik* (職, state-assigned post) and *eop* (業, subsistence labor) became entrenched in North Korea's labor world following the Arduous March, and analyzes the ontological transformations experienced by laboring subjects through the lens of Spinoza's philosophy, drawing on oral life-history narratives. While existing scholarship has focused primarily on marketization and everyday changes, this study traces the survival strategies and affective reconfigurations that workers underwent amid the structural separation between institutional affiliation and actual livelihood.

As the state's compensation system deteriorated and cadres monopolized positional rents, North Korea's productive organizations differentiated into three subject types: post-bound workers, subsistence workers, and positional rent workers. Analysis of the life histories of three narrators — Sincheol, Yeongsil, and Euncheol — reveals that their conatus manifested in distinct modalities: contraction, wandering, and adaptation, respectively. This demonstrates that the *jik-eop* disjunction is not merely a shift in economic survival strategies but a process entailing the differentiation of

* Research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laboring subjects and the reconfiguration of affect (*affectus*).

Through an oral life-history approach, this study illuminates the differentiation of subjects produced by fragmented labor, the diverse modalities of conatus, and the struggles of small lives, thereby casting light on the politics against life of the North Korean state at an ontological level.

Keywords *Jik-eop* Disjunction, Subsistence Labor, Conatus, *Affectus*, Positional Rents, Fragmented Labor, Oral Life History, *Affectio* (Affection), Spinoza, Occupation